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년 중국개발포럼 (China Development Forum)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주요 내용
3. 주요 정부인사 발언 관련 평가

주요 내용

- 2017년 3월 18~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조어대(钓鱼台)에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주관의 “2017년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개최됨.
 - 동 포럼은 ‘중국과 세계: 경제전환 및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함.
- 2017년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중·고속 경제성장 속도 유지 및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지향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임.
 - 중국 실물경제구조가 직면한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해 △ 제도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 △ 혁신 구동 △ 유효수요 확대 △ 잠재적 리스크 예방 △ 민생 개선 등 측면에서 개혁을 심화함.
 -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중국제조 2025」전략 시행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함.
 - 환경 분야의 △ 시스템화 △ 과학화 △ 법치화 △ 구체화 △ 정보화 등을 통해 환경 감독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함.
 - 글로벌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중기 내 유효수요를 늘리고 공급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함.
 - 신형 글로벌화의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의 △ 영역 확대 △ 활성화 △ 질적 수준 제고 △ 구조 최적화 △ 체제 완비 △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함.
- 공급 측 개혁 심화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혁신과 요소배분의 최적화로, 정부와 시장 간 효율적 역할분담이 실현되어야 함.
 - 정부는 제도적 결핍 분야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제도 및 감독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제도 및 체제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수립은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

1. 개요

■ 2017년 3월 18~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조어대(钓鱼台)에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주관의 “2017년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개최됨.

- 동 포럼은 매년 ‘양회(两会)’ 종료 후 첫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포럼으로, 2000년 제1회 개최 이후 국내외 정부관계자, 기업인, 국제조직 대표, 전문가들의 정책교류 및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 2017년 포럼은 ‘중국과 세계: 경제전환 및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국무원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리웨이(李伟) 주임 등이 참석해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함.

■ 장 부총리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2016년의 중국 경제운용 성과를 호평하며 2017년에도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향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16년 ‘오위일체(五位一体)¹⁾’ 및 ‘네 개의 전면(四个全面)²⁾’ 전략의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를 달성함.
 -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하며, 세계경제 성장에 30% 이상 기여하는 동시에 취업증가율 또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취업인구가 1,314만 명 증가)함.
 - 공급 측 구조개혁 실시 후 철강과 석탄의 생산능력이 각각 6,500만 t, 2억 9,000만 t 이상 감축되고, 유효소비 확대로 GDP 총액 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51.6%로 상승함.
 - 또한 민생 개선 정책을 지속 시행하여 농촌의 빈곤인구가 1,240만 명 감소되고, 수질·대기·토양 오염물의 처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생태문명 건설이 가속화됨.
- 2017년에는 중·고속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혁신발전 전략을 적극 시행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실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임.
 - 공급 측 구조개혁의 5대 임무(생산조절, 재고조절, 레버리지 축소, 비용절감, 효율적 공급) 추진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취업 보장 및 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것임.
 - 주요 분야 개혁을 가속화하여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녹색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민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적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국면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참여할 것임.

1)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 전략.

2)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법치화 추진, 전면적 당(黨) 정비.

- 반(反)보호무역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국가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혁신을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중·장기 발전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리 주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세계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내경제의 개혁 및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존공영의 글로벌 경제협력 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개혁의 전면 심화는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 및 구조개혁의 진전과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에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오위일체’ 및 ‘네 개의 전면’ 전략의 효율적 조합을 통해 중국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것임.

1. 주요 내용

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허립평(何立峰) 주임은 개혁의 심화를 통해 공급시스템의 질적 효율을 높임으로써 중국 실물경제 구조가 직면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중국의 실물경제는 △ 수급구조의 불균형 △ 금융과 실물경제 간 불균형 △ 부동산과 실물경제 간 불균형 등 세 가지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공급시스템 내 생산능력은 강화되었으나, 대부분 중·저급 기술, 저품질, 저가격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고품질, 다양화를 원하는 대중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임.
- 금융과 실물경제간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 분야의 융자 관련 문제가 야기됨.
-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대규모 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의 원가부담이 상승됨.

■ 세 가지 구조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발개위는 △ 제도 및 자원 배분의 최적화 △ 혁신 구동 △ 유효수요 확대 △ 잠재적 리스크 예방 △ 민생 개선 등 측면에서 개혁을 심화할 예정임.

- [제도 및 자원배분의 최적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진행하고, 정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발휘함.
- [혁신 구동] 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함.

- [유효수요 확대] 안정적 소비성장, 유효투자 확대, 도시 및 농촌 간 협력 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시환경 및 경제운용 프레임을 형성함.
- [잠재적 리스크 예방] 리스크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지 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잠재적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마지노선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함.
- [민생개선] 빈곤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기초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함.

나. 「중국제조 2025」와 구조개혁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마오웨이(苗圩) 부장은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혁신으로,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하고 발전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현재 중국 제조업의 혁신시스템은 정책, 인센티브, 서비스시스템, 사회적 환경 등 측면에서 여전히 제약과 폐단이 존재함.
 - [정책적 지원] 제조기업의 수혜 범위는 작고, 하이테크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기준은 높은 편으로, 기업혁신 장려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센티브 메커니즘] 혁신인력 동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과 인재, 정보, 리스크, 자본 등 혁신요소의 효율적 재배치가 필요함.
 - [서비스시스템]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수량이 적을 뿐 아니라, 그 역할이 미미하며, 대규모 과학연구 시설 및 혁신자원의 개방 수준이 낮은 편임.
 - [사회적 환경]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 및 수입이 낮은 수준임.
- 전체 사회투자 중 제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나, 2016년 제조업투자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수준임.
 - 비교적 저조한 투자수익률로 인해 제조기업 중 수익을 제조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이 적은 편임.

■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전면적 시행과 제도 및 정책의 단계적 개선이 제조업 혁신시스템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국제조 2025」전략을 기초로 △ 국가 제조업 혁신시스템 완비 △ 핵심기술 분야 난관 극복 △ 공업 기초역량 강화 △ 군민(軍民) 융합 발전전략 심화 △ 혁신인재 육성 △ 체제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질적 효율을 제고할 것임.

표 1.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

분야	추진 내용
국가 제조업 혁신시스템 완비	- 기업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간 신재료, 로봇 등 혁신분야 연구센터 건설 협력 가속화 - 성(省) 정부 산하 혁신연구센터 건설 - 표준기술 연구 및 산업화 응용 업무 확대
핵심기술 분야 난관 극복	- ‘핵·고·기(核高基)³⁾’, ‘양기(两机)⁴⁾’ 등 대규모 국가 과학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주요 신재료 연구개발 및 응용 프로젝트 가동 - 자동차 사물인터넷(IoV, Internet of Vehicles)의 보급 및 응용 가속화
공업 기초역량 강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주요 기초분야 병목현상 해소 - 인센티브 및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구축 - ‘4대 공업기초(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분야 지원 사업 확대 및 연구개발센터 건설 가속화 - 핵심 산업기술 기반시스템 개선
군민융합 발전전략	- 군수품 연구 및 생산 구조 조정 가속화 - 무기장비 연구 및 생산 시스템의 전문화, 개방화 추진 - 군민 기술 융합 촉진 - 군민 결합형 산업 발전 추진
혁신인재 양성	- 분야별 혁신 기업가, 전문가, 관리자 육성
체제개혁 심화	- 정부 행정권한 축소 - 혁신요소의 합리적 유동 저해요인 해소 - 시장진입제도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장 감독관리 강화 -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 확립 -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재정, 세수, 금융 정책 제정 - 과학기술 성과 전환 효율성 제고

자료: 『中国经济时报』(2017. 3. 20), 「创新是中国制造业转型升级的根本出路」.

다. 환경 거버넌스의 확립

■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천지닝(陈吉宁) 부장은 최근 중국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한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양방향 모두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환경보호 기준을 높이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효익도 높아지고 있음.
- 지역별 경제수준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태환경의 질적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철강, 석탄 분야의 과잉생산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환경기능구 건설 계획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3) 핵심전자부품, 중국산 고성능 칩셋, 기초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전략.

4) 항공발동기, 가스터빈 산업 발전전략.

- 2016년 조강 생산능력 약 6,500만 t, 석탄 생산능력 약 2억 9,000만 t을 도태시킨 결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석탄 소비량의 비중은 2010년 68%에서 2016년 62%로 하락함.
- 또한 최근 전국 13개 성(省) 내 총 면적 65만 km²에 달하는 생태 레드라인 보호구역을 확정하는 계획이 추진 중임.
- 대기·수질·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는 액션플랜을 시행하고 환경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는 등 효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임.
- 2016년 징진지(京津冀), 창장(长江)삼각주, 주강(珠江)삼각주 세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대비 30% 이상 호전되었으며, 전국 산성비 발생 면적은 전체 국토의 7.2%(역대 최대치는 30%)에 불과함.

■ 천부장은 향후 중국이 △ 시스템화 △ 과학화 △ 법치화 △ 구체화 △ 정보화 등을 목표로 환경관리 방식의 전환과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시스템화] 전체 유역·구역·지상·지하·육지·해양의 자연생태요소에 적용 가능한 총괄적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관리방식의 종합화를 추진함.
- 대기환경 관리기관 및 전체 유역 환경 모니터링 법집행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및 요소 간 환경관리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생태환경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함.
-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 가격, 시장에측성, 시장거래 등 방면에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녹색 생산·유통·소비를 유도함.
- [과학화] 환경보호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정책과 과학기술 간 융합을 심화함으로써 환경보호 대응책 마련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함.
- 신기술·신재료·신공법·신제품 개발과 관측 및 스마트 기술 발전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함.
- 정부, 과학기술계, 미디어, 대중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의 원인·피해·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을 개선함.
- 해외국가 및 글로벌기업과의 환경보호과학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함.
- [법치화] 중국은 신(新)환경보호법을 제정 및 시행, 입법 및 법 집행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제도 역시 지속 개선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 특색의 환경보호 감찰을 전면 시행하고, 공업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했으며, 성(省)정부 산하 환경보호기관의 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함.
- 환경보호 감독관리 법규의 강화를 통해 준법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구체화] 지역별 오염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급 부서별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시행조치 및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행정구역과 유역별 감독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책임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정보화] 환경보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터넷 플러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함.
-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생태환경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 전국 환경 모니터링 감찰법 집행 △ 환경상태 및 주요 기업 온라인 감독 △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 △ 고도 대기오염 긴급대응책 논의 등을 위한 플랫폼 개설을 추진 중임.

라. 미래사회 조성의 주요 추세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 러지웨이(楼继伟) 이사장은 최근 수급 불균형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능력의 취약함이 금융위기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함.

- 공급능력의 취약함은 과도한 관리 및 통제,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등에서 비롯됨.
- 또한 노동시장의 유동 및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기초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함.

■ 러 이사장은 위기로 인해 각각의 국가 내부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는 있으나, 위기는 개혁을 견인할 수 있으며, 개방 및 협력이 위기극복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글로벌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중기 내 유효수요를 늘리고 공급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포함,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적 지렛대 효과를 증대시키고, 단계적 총수요 확대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위기의 급속한 심화를 방지해야 함.
- 또한 동 시기를 기회로 활용, 금융감독관리를 포함한 관련 정책의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함.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재편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 취업형태, 소득분배 등의 변화를 추진함.
- 정보기술 및 신에너지기술의 발전, 스마트제조 확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응용 등은 원가의 절감과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
- 국가간 발전수준, 인구구조, 자연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글로벌 자원배분의 최적화는 모든 관련국에게 이익을 제공함.

- 국가간 협력을 통해 요소별 유동성의 정도 및 형태 등의 차이를 조절하고 배분의 최적화를 추진해야함.
- 자원배분의 최적화는 참여국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는 정부가 기초인프라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방식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음.
- 글로벌 경제가 뉴노멀(新常态)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세 가지 과도기(三期叠加)'⁵⁾에 처한 중국에게는 합리적 수준의 수요관리를 기초로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생산율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마. 신(新)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 상무부(商务部) 첸커밍(钱克明) 부부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서의 글로벌화를 언급하는 한편, 글로벌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불균형 초래, 포용성 부족 등을 지적함.

- 냉전 종식 이후, 동·서양 시장간 융합이 촉진되면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경제 성장의 황금기를 맞이함.
- 동 시기, 세계 GDP 총량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글로벌 화물 수출량과 투자액은 각각 5배,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계 빈곤인구 수가 약 60% 감소함.
- 그러나 글로벌화는 △ 국가간 발전수준 △ 산업간 발전수준 △ 소득분배 △ 환경보호와 사회발전 등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함.
-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는 선진국으로,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혜인구는 많으나 총수익 규모는 크지 않으며, 중소 개발도상국은 글로벌화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하이테크산업, 첨단제조업 등 가치 체인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전통산업은 쇠퇴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우선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함.
- 기존 글로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역내 자유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등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역내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타적·차별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존재함.

5) 성장속도 전환기, 구조조정 진통기, 과거부양정책 소화기.

■ 첸 부부장은 최근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중국 역시 신형 글로벌화의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의 △ 영역 확대 △ 활성화 △ 질적 수준 제고 △ 구조 최적화 △ 체제 완비 △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 [영역확대] 외자 유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자본의 시장진입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 투자의 규범화를 촉진함.
- [활성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활성화를 통한 대외개방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함.
- [질적수준 제고] 수출입상품의 품질제고에 주력하고,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하며, 선진 자본·기술·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고, 대외투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글로벌 자원배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함.
- [구조 최적화] 동·중·서부 지역의 균형적 개방을 촉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함.
 - 동부 지역 내 글로벌 선진제조업 기지를 조성하고, 서비스업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등 개방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성과를 기타 지역까지 확산함.
 - 내륙지역 각각의 우위에 따라 국내외 산업이전을 추진하고, 지역특색의 산업 발전을 촉진함.
 - 연안지역과 인접국가 간 기초 인프라 연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생산능력 협력을 강화함.
- [체제 완비]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를 포함한 주요 개방지역에서의 성과 확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방형 경제 체제 개혁 및 제도 혁신을 심화함.
- [협력 강화] 역내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함.
 - 역내·다자 간 협력 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는 한편, 개방형 글로벌경제 발전에 적극 협조함.

바.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AIIB) 진리첸(金立群) 행장은 기존의 경제 및 금융 인프라 프레임 내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IMF, World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AIIB 등 국제금융기구는 국가간 주요 대화 플랫폼으로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AIIB의 창립은 기존 금융기구의 경험 및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신형 다자간 금융협력기구 설립을 의미함.

- AIIB의 주요 설립 목적은 회원국의 위기해결 및 경제성장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간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2016년 17억 달러 규모의 첫 프로젝트를 가동함.
- 지난 50여 년간 대부분의 인프라 프레임이 국제기구의 설계에 의해 형성되어 온 가운데, 향후 융자 수요 대비 자원의 한계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효과적 역할 수행이 기대됨.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간 개발은행에서는 자금의 편중을 지양하고, 투자 범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각 금융기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관국의 국내 정책개혁에 협조함으로써 효율적 금융 및 재정 시스템을 정립해야 함.

■ 향후 AIIB는 녹색경제발전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타 금융개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AIIB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는 주로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과 석유화학에너지 대체 방안을 동시에 모색 중이며, 주주들과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 타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기초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프로젝트준비 특별기금'을 확보하여 저개발회원국 기초인프라 프로젝트에 활용할 방침임.
-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EBRD 등과 융자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내 교통·수리(水利)·에너지·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중국은 '프로젝트준비 특별기금'의 첫 번째 원조국이며, AIIB 총재국으로서 빈곤구제, 불균형해소, 주도적 개방 등 방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

사. 글로벌 자본 유동

■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판공성(潘功胜) 국장은 중국 외환보유액이 여전히 충분함을 강조하며, 역외자본유동 현황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함.

- 중국 외환보유액은 단기 조정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소폭 상승, 세계 외환보유액 중 28%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의 경제개방수준, 외자 및 국제 융자 이용 역량, 금융경제시스템의 성숙도 등 경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통적 지표나 IMF 경제전문가가 제시한 지표와 비교해도 매우 충분한 수준임.

- 중국의 역외자본유동 현황은 △ 시장주체의 대외자산 보유량 증가 △ 시장주체의 대외채무 비중 감소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과거 국가의 대외자산 보유량이 70%를 초과했으나, 최근 시장주체의 대외자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시장주체 간 각각 50% 비중을 차지함.

■ 국제 수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등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외환시장은 안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 수준 및 무역흑자 등 국제수지 측면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기초가 형성됨.
-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음.
- 2016년 GDP 내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1.9%로,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 가운데, 2016년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전년대비 40% 증가함.
- 지난 몇 년간 ODI 증가율이 10~20%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증가율 상승은 △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 △ 대외개방 확대 △ ‘일대일로’ 전략 및 글로벌 생산능력 협력 추진 등이 거시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세계 3위, 신흥시장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투자구조 또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아. 노벨경제학상 석학의 글로벌경제 관련 평가

- 마이클 스펜스(A. Michael Spence) 교수는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다자관계와 양자관계의 상호융합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키며, 다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인도와 중국 간 양자관계를 분석함.
- 만약 트럼프 정부가 다자주의를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소형 국가들의 생존 및 성장이 불투명해질 것이며, 양자관계 위주의 국제관계를 확산할 경우 소형 국가들의 주변화(边缘化)를 초래할 것임.
- 미·중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측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대국으로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함.

- 인도는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 인도 간 관계변화가 이후 세계경제 국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양자관계에 치중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며 미국의 공백이 중국에게는 국제기구와 협력루트를 다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글로벌화로부터 초래했으며, 보호주의가 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가 WTO의 규칙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은 국제규칙과 자국법률의 프레임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미국이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할 경우 중국은 국제기구와 협력루트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미국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음.

■ 에릭 마스크인(Eric Maskin) 교수는 중국과 인도를 사례로 들며, 글로벌화의 추진이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빈부격차의 감소는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글로벌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반면, 국제 무역 및 생산의 확대를 촉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왔음.
- 글로벌화의 확산은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원가 절감, 무역장애물 해소 등에 유리하게 작용함.
- 교육을 통해 저수준 노동인력의 기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완화함.
- 저수준 노동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받게 하고, 글로벌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교육자금을 정부 및 기업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우며, 국제기구, 해외원조, 민간기금 등 제3 기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 Pissarides) 교수에 따르면,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실질적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기술진보는 다른 측면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및 인공지능 상품이 대거 출시됨에 따라 향후 5~10년 내 약 10%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 그 결과 전통 제조업의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서비스산업 내 노동수요의 증가로 취업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임.
- 중국정부가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제조업의 자동화,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취업률은 감소하나 서비스업의 노동수요는 대폭 증가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겪은 후 서비스업의 취업률은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업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 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중국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며,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기까지는 더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할 것임.

■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S.Phelps) 교수는 최근 미국 전통산업 분야에서 혁신은 거의 중지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함.

- 기업 및 개인의 혁신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이 시장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우수한 경제정책으로 제시함.
- 대부분의 혁신에는 잠재적 리스크와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패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완충역할이 필요함.
- 미국 정부는 소비품 생산 분야 혁신 역량 약화와 중부지역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소비품 업계 내 새로운 경쟁상대 및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외부 위협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혁신의 필요성 역시 사라지게 됨.
- 중부지역 취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타 지역 산업의 혁신으로 인한 노동가격의 하락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한편 중국은 혁신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교수는 중국 경제는 18세기 이후 유럽 및 근대 일본·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 방식과 유사하게 교육 및 의료의 발전을 통해 경제의 고성장을 실현했다고 설명함.

- 높은 경제성장은 시장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이 교육, 빈곤구제, 의료 등 공공서비스 및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면서 교육 및 의료 분야 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2. 주요 정부인사 발언 관련 평가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연구부(发展战略和区域经济研究部) 호용즈(侯永志) 부장은 공급 측 개혁 심화의 첫째 전제조건은 혁신과 요소배분의 최적화로, 정부와 시장 간 효율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제도적 결핍 분야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제도 및 감독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공급 측 구조 개혁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정부의 주요 역할은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전망성이 있는 정책 및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운용의 규범화를 추진하는 것임.
- 구조 개혁은 생산력의 조정 과정이자 기업구조 및 이익구조의 재편 과정으로, 정부가 구조 개혁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 산업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잠재적 리스크가 큰 편으로,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할 수 있음.
 - 구조 개혁 진행 과정 중 일부 분야는 중·단기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는 시장 자체적 문제 해결이 가능했으나 시장경제 시기에 진입한 이후에는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해짐.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产业经济研究部) 자오창원(赵昌文)부장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마오 부장이 제시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을 분석함.

- 마오 부장이 제시한 내용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 포착 △ 혁신의 역할 △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요약할 수 있음.
- [기회 포착] 차세대 과학기술 및 산업 개혁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향후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여부, 나아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정보기술, 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은 불가피하게 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제조업 진흥을 통해 경제회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발전이 향후 국가 경쟁우위 확보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제조업은 대규모의 산업 시스템 및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나, 차세대 산업 개혁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해야 함.

- 제조업 발전방식의 전환은 제조업의 성장뿐 아니라 서비스업, 특히 생산성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혁신의 역할]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은 혁신임.
 - 혁신은 기술 진보를 견인하며, 기술진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 및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제조업 혁신은 핵심기술, 범용기술, 공업 컨트롤시스템 등과 관련된 자주역량 제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제조업 분야 산업체인의 시스템융합에도 영향을 미침.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및 인구규모, 장기간에 걸쳐 양성된 산업 융합능력, 전국적으로 확산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감안할 경우, 제조업 혁신은 타 국가에 없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혁신요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향후 중국 제조업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임.
 - [제조업 업그레이드] 중국 정부는 전반적인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시행중임.
 -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차세대 산업혁명의 주요 추세 및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중국 제조업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10년간 추진해야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최우선 전략은 정보 및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그 핵심은 스마트제조임.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전략을 기초로 정부와 시장 간 유기적 결합을 추진, 정부는 범용기술, 공공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규율 준수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고, 기업은 자원배분의 주체로서 기술노선 및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결정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 및 환경정책 연구소(资源与环境政策研究所) 가오스지(高世楫) 소장은 중국정부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개선의 속도 및 정도 면에서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감독관리의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녹색성장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함.
 - 환경보호법 개정을 가속화하고, 환경법의 일반화, 규범화, 전문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할 예정임.
 - 환경감독관리의 조직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역별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산하 환경관리 기구의 정보수집 능력의 향상함.
 - 중앙정부 내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배치 및 역할을 최적화하고, 내부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환경관리방안의 효율성 평가 제도를 제정하는 등 평가 역량을 강화함.
 - 환경감독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내부 컨트롤 기제 및 외부 문책 기제를 수립하고, 관리체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감독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对外经济研究部) 자오진핑(赵晋平) 부장은 상무부의 첸 부부장이 제시한 중국대외개방 정책 방향이 자주적 개방을 통한 글로벌화 발전을 지향하는 중국의 의지를 충분히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함.

- 세계경제가 구조조정 심화단계에 진입하며 향후 글로벌화의 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화 추진 과정 중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글로벌화 추세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함.
 - 기본적 국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 일체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 각 국가들과 공존공영의 운명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방구도를 조성할 계획임.
- 향후 제도 및 체제 개혁과 영역 확대를 통한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수립은 대외개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임.

[참고자료]

- 「创新是中国制造业转型升级的根本出路」.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聚焦经济转型与改革 共谋中国与世界发展」.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六位诺奖得主深度对话全球经济」.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1日)
- 「楼继伟：改革开放 合作是光明之」.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推进新一轮高水平对外开放应从六个方面努力」.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五方面着手提升环境治理现代化水平」.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以提高环境监管有效性为抓手建设美丽中国」.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以五大部署化解供给侧三大失衡」.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优化全球经济治理符合各国共同利益」.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张高丽出席中国发展高层论坛」. 2017. 『新华社』. (3月19日)
- 「中国将更加积极主动推进全球化进程」.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 「中国跨境资本流动正向均衡状态收敛」.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1日)
- 「抓住机遇 提升中国制造业竞争力」. 2017. 『中国经济时报』. (3月20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swimtiamo@naver.com)